

# 이종철 학예사 저서, 학술원 우수도서 선정

## 청동기시대 주요 지표인 '송국리형문화' 집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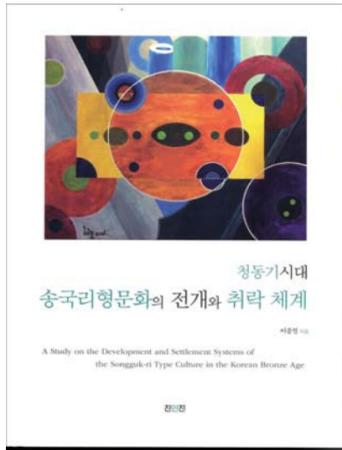
전북대학교 박물관 이종철 학예연구사가 쓴 책 '청동기시대 송국리형문화의 전개와 취락 체계(진인진)'가 2017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인문학 분야)에 선정됐다.



463쪽 분량의 이 책은 한국 청동기 시대의 주요 지표인 '송국리형 문화'에 대해 오랜 연구를 해왔던 저자가 지난해 펴낸 것이다. 석·박사 학위 논문을 비롯한 그간 연구에서도 송국리를 중심으로 한 청동기 문화 전반에 대한 연구 성과를 축적해 온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송국리형 문화'의 전개 과정을 집대성해 냈다. 때문에 청동기 시대 생활양식의 총괄적인 증거 집합체라 할 수 있는 '취락체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책은 청동기 시대의 주요 연구 대상으로의 가치를 지니는 송국리형문화에 대한 총괄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의로 부각된다. 저자는 263개 유적과 2000여 기의 송국리형 취락을 분석함으로써 권역별 변화상을 드러냈고 영역화의 개념과 적극적인 수용으로 취락 고고학의 근본 목표에 접근하고 있다. 또한 주거 영역과 매장 영역에 드러난 위계의 존재에 내포된 상대적 성격 규명, 주요 거점 취락에 대한 취락 고고학적 접근을 통한 지역 연계망 파악, 그리고 문화집중 양상을 통한 금강 유역권의 정체성 등을 재확인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학술원은 기초학문분야의 연구 및 저술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인문학, 사회과학, 한국학, 자연과학 등 4개 분야에서 심사를 통해 우수학술 도서를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도서는 전국의 대학 및 연구소 등 주요기관에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마크를 부착해 보급한다. 올해 인문학 분야 79종, 사회과학 분야 95종, 한국학 40종, 자연과학 73종, 총 287종이 선정됐다. /정해은 기자



'청동기시대 송국리형문화의 전개와 취락체계' 표지

## 효자지구대, 공사장 건축자재 절도사건 예방 '총력'

전주완산경찰서 효자지구대(대장 박현귀)가 관내의 공사장 건축자재들의 절도사건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관내 신축공사 10여개소 등이 위치한 효자지구대는 고가의 장비나 자재들이 야간에 발다른 절도예방 장치가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취약지역으로 분류 후 적극적인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박현귀 효자지구대장은 "경찰이 심야시간에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나 더 큰 문제점은 공사관계자의 무관심이라며 야간에는 자구책으로 112순찰차 거점근무 및 협력단체와 합동순찰을 강화하여 절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민근 기자

## 덕진경찰서, 양태규 전 경찰서장 초청 멘토링 교육 실시

전주덕진경찰서(서장 박성규)는 지난 31일 양태규 전 경찰서장을 초청해 신입순경 25명을 대상으로 멘토링 교육을 실시했다.



멘토로 나선 양태규 전 경찰서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제34대 덕진경찰서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덕진경찰서의 멘토링 교육은 교재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찰의 업무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명망높은 퇴직 경찰관을 자문위원으로 초청해 실시하고 있다.

멘토 강사인 양태규 전 경찰서장은 이 자리에서 "후배 경찰관 분들을 만나서 기쁘고, 앞으로 경찰관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고, 특히 인권수호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였다. /김민근 기자

## 무주경찰서, 전문사격 향상 위한 정례훈련 실시

무주경찰서(서장 나영민)는 지난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경찰서 사격장에서 전 경찰관 대상으로 전문사격 향상을 위한 정례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38권총 정례사격 훈련은 긴급한 강력범죄 현장에서 적법한 요건에 맞게 주변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무릎좌, 서서좌 등 상황에 맞는 자세를 취하며 범인을 정확히 제압하는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나영민 경찰서장은 "경찰관은 각종 위험한 상황에서도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인을 제압,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선진 기자

## 익산시 모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Happy Day' 행사 진행

익산시 모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상대적 박탈감으로 소외되기 쉬운 복지 사각지대 놓여 있는 저소득층 아동(조순가정, 다문화가정, 장애인가정 등) 15명을 선정해 최근 'Happy Day' 행사를 진행했다.



'Happy Day' 행사는 모현동 맞춤형 복지팀과 원광종합복지관이 주관해 관계자들이 일일 부모가 되어 도서 구입과 마트에서 아동들이 좋아하는 물품(운동화, 의료, 학용품, 장난감 등)을 구입하고, 맛있는 점심식사를 함께 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이날 모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린이들에게 맞춤형 물품(1인당 190천원)을 지원했다. 어린이들은 각자 필요했던 물품을 고르고, 구입하며 함박 웃음을 지었다.

안병진 협의체민관위원장은 "올해 성탄절에도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추진 할 계획이다"며 "이웃이 이웃을 돕는 더불어 행복한 모현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 남원의료원, 폐렴 2차 적정성평가 1등급 선정

남원의료원(원장 박주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병원급 이상 563개 의료기관의 대상으로 실시한 '폐렴 2차 적정성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 병원으로 선정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폐렴적정성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은 폐렴으로 암, 심장, 뇌혈관 질환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질환으로 폐렴 진료의 현황 파악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의료기관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해 왔으며, 적정성평가 지표별로는 산소포도화합사실시율, 병원도착 24시간이내 중증도 판정 도구 사용률, 객담도말 검사 및 배양검사 처방률, 첫 항생제 투여전 혈액배양검사 실시율, 병원도착 8시간이내 항생제 투여율, 금연교육실시율,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확인율 등 지표별 기준치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분석한 결과 종합점수 99.7점으로 1등급을 받았다. /남원=유영철 기자

## 전개공, 임실군 관촌면 방동마을서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 펼쳐

전북개발공사는 지난 31일 1사촌 자매결연 마을인 임실군 관촌면 방동마을을 찾아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해 고추 지지대 설치, 고구마 모종 심기, 마을 환경정비 등 봉사활동에 구슬땀을 흘렸으며, 공사는 2007년부터 11년째 도내 소외지역과 자매결연하여 매년 볼·가을 두차례 정기적으로 일손돕기를 펼쳐오고 있다.

한편, 전북개발공사는 관촌면 방동마을과 지난 3월에 새로이 '도농간 상생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농촌일손돕기와 농산물 직거래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농촌사랑을 실천해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 /안재용 기자

### 결론

▲박혁(전주중부새마을금고 근무, 박중호 전 덕진구청장·현 전북도전주경찰서 순의장·김순자씨 아들)·군·오세희(오병남·김미화씨 삼녀)양= 일시: 6월 10일 (토) 오후 1시,장소: 전주N타워 컨벤션센터 2층 아이리시홀, 연락처: 박중호 (010-6600-9107)

<b>전주매일</b> www.jimaeil.com 2017년 11월 25일 (목요일)			
등록번호 전북가000016		(우)660912 전주시 영신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도순출판)	
발행·편집장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전무 겸 편집국장 김관춘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388-6874	남원지사 632-3886	고창지사 563-6888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842-2725
서산지사 010-2333-4791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서신지사 272-9417	광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55	정읍지사 538-3787
호치지사 010-9845-9355	군산지사 010-6789-03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9157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33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헌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사제보 288-9700

수업내용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이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난하고  
비록한  
학교  
복합한  
교육  
기대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급자'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